

광주는 강하다...안방에선 더 강하다

광주FC, 오늘 홈서 전남과 엘로더비

홈 승률 83%...8경기 연속 무패 상승세 '광탄소년단' 앞세워 "이왕이면 다득점"



무패 행진을 달리고 있는 프로축구 광주FC가 홈에서 승리를 노린다. 광주는 17일 오후 7시 광주축구전용구장에서 전남드래곤즈와 하나원큐 K리그2 2022 33라운드 홈경기를 치른다. 지난 라운드 안산그리너스 원정을 떠난 광주는 점유율(32.68)과 패스(241개:560개), 슈팅(6:23) 등 모든 지표에서 상대를 압도했으나 결정적 찬스를 살리지 못하며 0-0 무승부에 만족해야 했다. 아쉬움은 빨리 잊고 털어내야 한다. 현재 8경기 무패 행진(4승 4무)과 함께 홈 승률 83%로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만큼 홈경기 다득점 승리로 자신감을 되찾을 필요가 있다. 광주가 자랑하는 광탄소년단의 활약이 매섭다. 지난 라운드 풀타임을 소화한 엄

지성은 7개의 슈팅을 기록, 상대 골문을 위협했으며 허윤은 공중볼 장악과 연계플레이로 공격 전개에 활기를 불어넣었다. 이희균과 정호연은 중원에서 왕성한 활동량으로 공수 연결고리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광주의 수비진은 5경기 연속 무실점을 기록하는 등 더 견고해진 모습을 자랑한다. 주장 안영규가 경고누적으로 결장하지만 김재봉이 복귀, 수비 라인에 힘을 보낼 예정이다. 이번 상대 전남은 현재 4승 13무 1패로 10위에 있다. 최근 15경기에서 승리를 신고하지 못하고 있으며 역대 전적 11승 7무 6패로 광주가 우위를 점하고 있다. 하지만 방심은 금물이다. 전남은 플라나, 발로텔리, 박인혁, 김현욱 등 강력한 한방을 갖춘 선수들과 함께 여름 이적시장을 통해 추상훈, 한석희, 김수범 등 걸출한 실력의 선수들을 영입하며 반전을 노



엄지성

허윤

리고 있다. 또 지난 시즌 FA컵 챔피언 자리에 오를 만큼 저력이 있는 팀이다. 광주는 홈 이점을 앞세워 중원의 적극적인 압박과 안정된 수비로 상

대 공격을 묶고, 빠른 공격 전개로 다득점을 노린다는 계획이다. 광주가 홈에서 전남을 꺾고, 무패 행진을 이어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 /박희중기자



KIA, 오늘 홈 SSG戰

명품조연 백봉기 승리기원 시구



승리기원 시구 이벤트를 개최한다.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가 17일 광주-기아 챔피언스 필드에서 열리는 홈경기에서 배우 백봉기(사진) 씨를 초청, KIA 타이거즈 열성팬인 백봉기 씨는 이날 SSG 랜더스와의 경기에서 시구자로 나서 KIA의 승리를 기원한다. 백봉기 씨는 '푸른거탑'에서 백봉기 일병역을 연기하며 큰 인기를 얻었고, 이후에도 드라마와 영화 등에 출연하며 '명품 조연'으로 사랑 받았다. 현재는 유튜브 '백봉기 티비 BBTv' 채널을 운영하고 있다.

백혈병소아암 환아 및 가족 100명 초청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가 (사)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 광주전남지회를 통해 백혈병소아암을 앓고 있는 지역 어린이와 가족들을 초청한다. KIA는 17일 광주-기아 챔피언스 필드에서 열리는 SSG 랜더스와의 경기에서 광주전남 지역 백혈병소아암 환아 및 가족 100명을 초청해 무료 관람을 지원한다. 이날 행사는 백혈병소아암으로 투병 중인 어린이들의 회복과 성장을 후원 및 응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KIA 관계자는 "병마와 싸우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어린이들의 쾌유를 기원하며 특별한 야구장 나들이를 마련했다"면서 "어린이들이 야구를 관람하고 응원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희중기자



제37회 대통령기 전국보림대회 여자일반부 5인조전에서 금메달을 합작한 곡성군청 선수단.

곡성군청·전남과학대 대통령기 볼링 '金합작'

전남선수단, 금메달 2개·은메달 5개·동메달 7개 성과

곡성군청과 전남과학대가 제37회 대통령기 전국보림대회에서 금메달을 획득했다. 대회에 참가한 전남선수단은 금메달 2개, 은메달 5개, 동메달 7개를 따내는 선전을 펼쳤다. 곡성군청은 최근 경북 구미에서 열린 대회 여자일반부 5인조전에서 이영승·김예슬·김문정·하유림·김현미·장미나가 팀을 이뤄 창원특례시와 서울시설공단을 제치고 금메달을 합작했다. 서정민·송세정·김동현이 팀을 이룬 전남과학대는 남자대학부 3인조전에서 총점 2천713점(평균 226.1)으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함께 출전한 세한대(박대희·강태영·송승민)는 2천618점(평균 218.2)을 획득, 전남과학대와 배재대에 이어 동메달을 차지했다. 전남과학대 서정민과 김동현은 남자대학부 마스터즈 경기에서 각각 2천349점(평균 234.9), 2천340점(평균 234.0)을 기록하며 은메달과 동메달을 획득했다. 전남과학대 권혜인은 여자대학부 개인전에서 874점(평균 218.5)으로 은메달을 따냈다. 이어 세한대(송승민·김호진·강태영·김준상·이승철·박대희)가 남자대학부 5인조전에서 은메달을 획득한 것을 비롯해 곡성군청 장미나가 여자일반부 마스터즈(2천232점·평균 223.2)에서, 광양시청(최복음·백준용·백승민·박재훈·가수형)이 남자일반부 5인조전 각각 은메달을 추가했다. 이밖에 여자대학부 5인조전에 출전한 전남과학대(임채연·이지원·한미향·최한울·권혜인·정윤경), 여자일반부 개인전에 나선 곡성군청 하유림(849점·평균 212.3), 여자일반부 2인조전에서 고흥군청(이미소·남은실), 남자일반부 개인종합에서 고흥군청 이승원(3천298점·평균 206.1), 남자일반부 마스터즈에서 광양시청 최복음(총점 2천361점·평균 236.1)이 각각 값진 동메달을 추가했다. /박희중기자

광주FC, 영호남 대학생 국토순례단 용품 지원

프로축구 광주FC가 영호남 대학생 국토순례단을 응원한다. 광주는 영호남 총학생 협의회(21기)

가 주최, 주관하는 영호남 화합 국토순례를 응원하기 위해 T셔츠와 음료 등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학생 국토순례는 하동과 광양을 포함한 영호남 일대에서 이뤄지며, 7일부터 18일까지 총 100여명이 참여

한다. 광주FC 관계자는 "국토순례단에 참가하는 학생들이 우리 국토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고, 영호남 화합을 다지는 좋은 계기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박희중기자



작년 하이원리조트 여자오픈 챔피언 임희정. (KLPGA 제공)

임희정, '텃밭'서 3연패 도전 하이원리조트오픈 내일 개막

'사막여우' 임희정(22)이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에서 4명밖에 이루지 못한 단일 대회 3연패에 도전한다.

임희정은 18일부터 강원도 정선군 하이원리조트 컨트리클럽에서 열리는 KLPGA 투어 하이원리조트 여자오픈(총상금 8억원)에 출전한다.

하이원리조트는 임희정에게는 '텃밭'이자 '악축의 땅'이다.

하이원리조트에서 지척인 태백시에서 자란 임희정은 주니어 시절부터 하이원리조트 컨트리클럽에서 자주 골프를 쳤다.

임희정에게 고향이나 다름없다. 누구보다 코스를 잘 안다.

임희정이 우승 갈증을 겪을 때마다 시원하게 씻어준 곳 역시 하이원리조트 컨트리클럽이다.

2019년 주목을 받으며 데뷔했지만, 기대에 미치지 못해 애를 태웠던 임희정은 하이원리조트 여자오픈에서 생애 첫 우승을 거두면서 날아올랐다.

코로나19 사태로 2020년에 대회를 거르고 지난해 열린 하이원리조트 여자오픈 역시 임희정에게는 '구원의 땅'이었다.

임희정이 올해도 우승하면 대회 3연패를 달성한다.

KLPGA 투어에서 단일 대회 3연패는 고(故) 구옥희, 박세리(45), 강수연(46), 그리고 김혜림(33) 등 4명만 달성한 대기록이다. /연환뉴스



김주형이 지난 15일 열린 PGA 투어 2021-2022시즌 플레이오프 1차전 페덱스 세인트 주드 챔피언십 마지막 날 17번홀에서 티샷 후 티구를 지켜보고 있다. /AFP-연환뉴스

거침없는 김주형, PGA 투어 신인왕 넘본다

캐머런 영과 경합...프레지던츠컵 대회 출전은 사실상 확정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2022-2023시즌 시드를 확보한 김주형(20)이 2019년 임성재(24)에 이어 한국인 두 번째 신인왕 가능성도 불투명하고 있다. 김주형은 15일 끝난 PGA 투어 2021-2022시즌 플레이오프 1차전 페덱스 세인트 주드 챔피언십에서 공동 13위를 기록, 페덱스컵 순위 25위에 올랐다. 이 추세라면 페덱스컵 상위 30명만 나가는 시즌 최종전 투어 챔피언십 출전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2021-2022시즌이 개막할 때만 하더라도 PGA 투어 정규 회원이 아니었던 김주형은 이달 초 워싱턴 챔피언십에서 우승하며 곧바로 PGA 투어 회원 자격을 획득했다.

또 신인왕 후보가 될 수 있는 10개 대회 출전 조건도 세인트 주드 챔피언십으로 채우면서 일약 신인왕 후보로까지 떠올랐다. 신인왕은 2021-2022시즌 신인 자격이 있는 선수들을 대상으로 이번 시즌 15개 대회 이상 출전한 선수들의 투표로 정한다. 일단 성격으로 보면 캐머런 영(미국)이 가장 앞서 있다. 영은 페덱스컵 순위 13위에 올라 있다. 영은 이번 시즌 우승은 없지만 준우승만 5차례 하며 강력한 신인왕 후보로 거론된다. 영은 이번 시즌 상금 638만7천98달러(약 83억6천만원)를 벌였는데 이는

역대 신인 최다 기록이다. 종전 기록은 2016-2017시즌 켄터 쇼플리(미국)의 431만2천674달러였다. 출전 대회 수가 영은 23개, 김주형은 10개로 차이가 나는 가운데 김주형의 시즌 상금은 288만8천488달러다. 따라서 김주형이 신인왕을 넘보려면 남은 플레이오프 2개 대회 성적을 바탕으로 페덱스컵 순위에서 영을 추월해야 한다. 김주형은 이미 9월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샬럿에서 열리는 미국과 인터내셔널의 남자 골프 대항전 프레지던츠컵 출전을 사실상 확정했다. 여기에 황재우 아시안게임이 2023년 9월로 연기되면서 세계 랭킹에 따라 출전 자격을 얻게 될 가능성도 커졌다. /연환뉴스

'스포츠클럽 기초체력왕 지역대회' 열린다

부문별 1, 2, 3위 시도대항전 출전

광주시체육회가 코로나19로 침체됐던 스포츠 활동에 활력을 불어넣고 공공스포츠클럽을 활성화하기 위해 '스포츠클럽 기초체력왕 지역대회'를 개최한다. 광주시체육회는 16일 "오는 25일까지 남부대 국제수영장 내 경기장에서 7개 클럽 210명이 참가해 예선전을 치른다"며 "시도대항전은 27일 광주, 부산 등을 비롯해 남부지역 8개 시도가 참가해 지역별로 열리며, 최종 전국 결승대회는 28일 대전에서 개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전국 공공스포츠클럽을 대상으로 대한체육회에서 추천하는 사업으로, 정보통신기술(ICT)을 융합한 스포츠 게임 콘텐츠, 동작인식센서 등

을 활용해 온라인 디지털 스포츠대회로 진행된다. 경기종목은 비트점프, 리듬댄스(베도벤바이리스), 사이드스텝, 하이니 등 4개 종목이며, 참가 부문은 연령대별로 6개 부문 5명씩 한 클럽당 최소 5명(1개 부문)에서 최대 30명(6개 부문)까지다. 각 지역 예선전을 통해 부문별 1, 2, 3위는 시도대항전에 출전할 수 있으며 입상을 하게 되면 최종대회에 참가할 수 있다. 이상동 광주시체육회장은 "이번 대회는 새로운 스포츠 콘텐츠로 진행되는 대회로 미래 디지털 시대 흐름에 맞춰 온라인으로 스포츠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장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광주지역 공공스포츠클럽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박희중기자